

전북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잇따라

올해 남원시 이어 진안·부안·고창·순창 등 6곳 추가 도입 발행액 4203억 규모 전국 최다...연내 11곳으로 늘어날 듯

전북 지역 시·군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잇따라 발행하고 있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새로 발행했거나 발행할 계획인 지역 자치단체는 남원시, 고창군, 순창군 등 모두 6곳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된 행정구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를 제외

한 모든 상점에서 쓸 수 있다. 남원시는 지난 달 '남원사랑 상품권'을 유통하기 시작했고 진안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선보인다. 이어 고창이 7월, 부안과 순창이 9월, 무주가 10월 발행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예정대로라면 연말까지 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1개 지자체에 지역사랑 상품권이

도입된다. 올해 발행 예정액도 4203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남은 3곳 가운데 익산시와 정읍시도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지역 자치단체들이 상품권 발행에 앞다퉀 뛰어드는 것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5~10% 할인 혜택을 받으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상인은 손님이 쓰는 데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어 반응도

좋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무주군은 10%, 나머지 시·군은 5% 할인해 판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부터 발행금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해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크게 줄게 됐다.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큰 효과가 있다"며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지역 청년 대상 '첫 출발 창업학교' 문열어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남원지역의 '첫출발 창업학교'가 문을 열었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8일 센터 교육장에서 청년창업자와 예비창업자 등 3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첫출발 창업학교 개강식(사진)을 가졌다. 센터가 운영하는 창업학교는 이날부터 8주간 매주 월요일(오후 2시~오후 4시) 운영된다. 창업학교 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본교육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초빙돼 비즈니스모델과 마케팅, 온라인마케

팅, 크라우드펀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심화교육 과정에는 기본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시제품제작,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실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성공 창업을 꿈꾸는 만 39세 이하 청년 30명을 선발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창업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다양한 비즈니스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청년·노인 주거안정 '어울림플랫폼' 건립

정읍에 청년창업 지원과 노인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시니어 어울림플랫폼'이 들어선다. 정읍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추진하는 어울림플랫폼은 총사업비 36억원이 투입돼 네트워킹센터(180㎡)와 행복주택(20세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일 유진섭 시장, 최낙삼 시의회 의장, 임정수 LH전북지역본부장, 원도심 내 상인회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옛 금강호텔)에서 기공식(사진)을 개최했다. 네트워킹센터는 원도심 내 청년 창업네

트워크 구축을 통해 브랜드 창출과 디자인 개발, 웹페이지 구축 등 청년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또 행복주택은 청년과 노약자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어울림플랫폼은 오랫동안 준비와 계획 기간을 가진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숲 문화관과 샘고을, 어울림 플랫폼, 생화차 커뮤니티라운지, 문화예술허브센터, 수성 복합청사개발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2019년 신안튤립축제'가 12일부터 10일간 '바다와 모래의 섬 입자 만났네!'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제 주 무대인 신안 입자도 대광해변 일원. <신안군 제공>

'백만송이 튤립' 봄꽃 향연 펼쳐진다

'신안튤립축제' 오늘 개막...그림그리기·승마체험 등 다양

'2019년 신안튤립축제'가 신안 입자도 대광해변 일원에서 12일부터 10일간 '바다와 모래의 섬 입자 만났네!'란 주제로 열린다. 동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12km 백사장 대광해변에서 백만 송이 튤립, 유채꽃밭, 다양한 화목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해변과 화사한 봄꽃의 향기를 함께 느껴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축제장에는 입자도를 대표하는 수산물인 민어를 활용한 조형물과 축제장 곳곳에 다양한 포토존을 마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50종의 튤립품종 전시포를 비롯해 리빙스텐데이지, 라난큐러스, 팬지 등 봄을

대표하는 다양한 꽃들의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제5회 튤립학생 사생대회'와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노래자랑'도 열린다. 체험행사로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튤립화분을 만들어 보는 'DIY 튤립화분 만들기'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장, 생활도자기 튤립그림 그리기 및 유채꽃밭 승마체험 등도 준비됐다. 'KISS 포토존'에서 연인 간 키스 인증 사진을 제시한 사람들에게는 선착순으로 튤립화분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완도수목원, 유아숲체험 등 힐링관광 프로그램 운영

완도수목원이 난대림 힐링 관광 활성화 위해 유아숲체험·난대림 숲해설 등 고품격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도수목원은 봄·가을·황칠나무 등 770여 희귀 난대수종이 자생하는 국내 최대이자 유일한 난대수목원으로 다양한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체험 행사는 유아숲체험·정소년 녹색수업(Green school)·숲해설·목공예 등이다. 품격있는 산림체험 서비스를 위해 산림청 인증 난대림 산림교육 전문기관인

'난대숲사랑'에 이들 프로그램을 위탁해 운영 중이다. 또 30여 명의 힐링 관광 활동가를 별도로 모집해 원활한 산림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이미 실시했거나 최대이자 유일한 난대수목원으로 다양한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참가자는 완도수목원 누리집 자동 예약 시스템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계층과 연령대에 맞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군산해경, 수상 안전 대국민 체험행사

은파호수공원 일원...조난사고 발신법 등 교육

군산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체험행사를 펼친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13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광장 일원에서 '제4회 수상사고

대비 대국민 체험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수상사고시 생존을 위한 ▲선박사고 생존법 ▲조난사고 발신법 ▲구명뗏목 팽창법 ▲슬라이드 이용 선박 탈출법

등을 직접 체험하고 AED 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뤄진다.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을 위해 ▲수상안전 그림그리기 ▲해양경찰 제복입고 사진 찍기 ▲선박 모형 접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장비 착용해 보기 등 다양한 참여행사도 마련된다. 행기와 고속단정의 인명구조 시연, 드론 활용 구명환 이용한 인명구조, 참여한 장비들이 펼쳐는 수상 퍼레이드 등의 이색적

인 행사도 펼친다. 이 밖에 박력 넘치는 해경 의장대 공연과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와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사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종실 군산해경 기획운영과장은 "해양안전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이색적인 볼거리 등으로 이뤄지는 대국민 체험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매매 - 7,5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